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시급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르게 장착해야 안전 담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체격이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영유아를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

글_ 채희영 대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카시트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단위 : 명]

소비자인식	답변자수	
	예	아니오
카시트는 자가용의 어느 좌석에 장착해도 무방하다	17	83
카시트는 반드시 좌석에 고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5	95
카시트의 장착방향은 앞보기이든 뒤보기이든 무방하다	21	79
카시트 등받이는 눕히든 세우든 무방하다	24	76
카시트가 자녀의 신체 전부를 포섭할 필요는 없다	5	95

※ 5개 문항 모두 '아니오'가 정답

카시트 미착용 이유

[단위 : 명]

카시트 미착용 이유	답변자수
목적지가 가까워서	38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38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13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울거 장착하지 못해서)	13
자녀에게 소유하기 위해	4
기타*	1

* 차량의 정원이 초과하여 카시트를 장착할 여유 공간이 없어서

100명 중 17명 카시트 잘못 장착 또는 부적절하게 써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 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

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 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

항상 카시트에 앉히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하다. 이는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신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안전벨트 보조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장단계에 따라 뒤보기 카시트, 앞보기 카시트, 부스터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렌터카·카셰어링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해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TIP

카시트 중요 장착수칙

- **제1수칙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한다.**
-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된 좌우측 뒷좌석은 모두 장착 가능.
- 차량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전개되는 에어백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2인승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에어백을 해제하고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민 후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함.
- **제2수칙 카시트는 장착방법에 맞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한다.**
- 느슨하게 고정된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심하게 움직여 영유아에게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
- **제3수칙 만 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한다.**
- 뒤보기는 앞보기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음.
- **제4수칙 등받이를 충분히(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 눕혀서 장착한다.**
-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야 영유아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곤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제5수칙 카시트의 머리지지대(헤드레스트; headrest)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 머리지지대가 영유아 신체에 비해 낮은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머리 및 목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함.

